

전남대서 모의유엔회의 개막...“기후·평화 해법 찾는다”



제28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가 7월 4일 전남대학교에서 개막했다. <사진> 이날 개회식에는 전국 28개 대학교에서 모이든 250여명의 학생들과 광영훈 한국유엔협회 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교수 등이 참석했다. 모의유엔회의는 학생들이 국제회의에 대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1995년 시작했다. 회의형식은 모두 실제 유엔의 의사결정 시스템

을 그대로 재현하며, 유엔에서 논의되었던 국제 이슈를 다룬다. 이번 의제는 '기후변화와 국제평화 안보',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역할' 등 3가지다. 모의 유엔대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총회(본회의), 전남대가 주관하는 환영 만찬이 열리고, 5일과 6일에는 위원회별 공식·비공식 회의가, 7일에는 제2차 총회(본회의)로 마무리된다.

광영훈 유엔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유엔의 분야별 이슈에 대해 국가별 개별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다자 외교의 해법과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택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인류 공동의 난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동문제를 찾아 해법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밀알중앙회 제9기 강사랑환경대학 수료식



밀알중앙회 제9기 강사랑환경대학(대표 고헌현) 수료식이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수료식과 함께 명예환경감시원 소양교육 및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2023 환경부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제9기 강사랑환경대학에는 각계 시민 38명이 참여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강사랑환경대학 수료자는 모두 227명이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제9기 강사랑환경대학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14강으로 진행됐으며 이론교육과 현장탐방 행사가 어우러졌다. 강사로는 재정부 전남대 명예교수, 김병준 전 전주시방기상청장, 오영상 광주생명연구소 공동대표, 박남규 강사랑환경대학 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푸른길공원, 시민의숲 아영장, 광주환경공단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복습지 등 현장 탐방 행사도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학생들 뷰티 국제공모전 전원 수상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미용예술학과(학과장 박준순 교수) 학생들이 최근 '2023년 제19회 월드뷰티아트&디자인 국제공모전'에서 참가학생 전원 이 상을 받았다. <사진> 주소연, 정지환(이상 1년)씨는 헤어 블로우 드 라이 종목에서 국회의원을 수상했다. 대학원 석

사과정 윤한별과 곽혜진(3년)씨는 헤어커트 부문에서, 김민서(2년)씨는 헤어 데이스타일부문에서, 이현찬과 김리나(이상 1년)는 각각 헤어 블로우드라이부문과 캐리커메이크업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구민호 여수시의원

현열 홍보위원 위촉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원장 김동수)은 지난 4일 여수시의원 구민호<사진> 의원을 현열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현열 홍보위원은 지역 내 현열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구 의원은 "현열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행위"라며 "지역 내 현열 문화 확산 및 실질적인 현열 참여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민호 의원은 지난 해 9월 현열의집 여수센터에서 현열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했으며, '여수시 현열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현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aT '공공부문 탄소배출 저감 분야' 대한민국의 환경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일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탄소배출 저감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aT는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의 국내외 확산과 함께 ▲공공기관 최초 SBTi 가입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 획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비축기지 운영 ▲저탄소 농작물 우릴 생산 확대 등에서 배출 저감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사

- ◆복구
 - ◇4급 승진 ▲감사담당관 한양택
 - ◇5급 승진 ▲민생경제과 이민숙 ▲기획조정실 임영란 ▲공원녹지과 홍민수 ▲기획조정실 고경희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00 비밀의 여자 스페셜	15 푸르기 식재료(재) 45 크리켓맛2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배틀트립 2(재)	00 12 MBC 뉴스 25 넘버스(재)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40 악귀(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40 김대호의 퇴근 후N(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20 스튜디오 K 스페셜		
3	00 상상푸르기 푸다 2 1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불편해도 괜찮아 4 50 만담 다큐 호수인(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연(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테마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2 15 프라본 원정대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최강 1교시(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여자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흥감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세컨 하우스 2	00 다큐 M	00 관계자 외 출입금지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0 더 라이브	00 구해줘! 홈즈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영상앨범 신(재)	50 아이 러브 스포츠	40 문화콘서트 난장	
12	00 KBS 중계식	15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0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시용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15 하프와 친구들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숲이 그린 집(재)
0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엄마 까투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히말라야와 카라코람의 봄 -카라코람의 봄, 스카르두>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이때를 기다렸다 4부 -오리차차 미스터 김>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5 다큐멘터리K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파 피그	22:50 귀하신 몸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10:30 한국기행(재)	17:25 뽀뽀뽀 뽀로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6일(음 5월 19일 乙丑)

<p>36년생 순발력 있는 대치가 절실한 때이다. 48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60년생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맑은 데로 간다. 72년생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간격을 이루게 되리라. 84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열쇠를 갖게 된다. 96년생 활용한다면 판이한 결과를 낳는다. 행운의 숫자 : 15, 80</p>	<p>42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고, 54년생 신속히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66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 비결은 따로 있다. 78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90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02년생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1, 73</p>
<p>37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무난함을 인식해야 하느니라. 49년생 틀리지 않게 잘 보고 조처하자. 61년생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판세이다. 73년생 차후의 문제는 차치하고 당면 과제부터 해결하라. 85년생 끝까지 절제된 언행을 한다면 시비수를 피해 갈 수 있다. 97년생 고생해 놓고 남을 일만 시킨다. 행운의 숫자 : 07, 66</p>	<p>43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할 것이니라. 55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다. 67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79년생 조언을 구해 본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 91년생 개괄적인 파악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03년생 방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1, 67</p>
<p>38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50년생 불청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겼겠다. 62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진력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니라. 74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86년생 확신이 선다면 재지 말고 즉시 추진하자. 98년생 여건이 풀린다. 행운의 숫자 : 37, 52</p>	<p>44년생 구체적이지 않으면 끈기롭게 불과하다. 56년생 움직임이 약하지만 실속은 있는 편이다. 68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80년생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니라. 92년생 사 이루어진다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04년생 참신함이 행운을 안겨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86</p>
<p>39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51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63년생 마무리까지 확실해야 비로소 취하게 된다. 75년생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손실을 자초함을 알아야 한다. 87년생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 터지는 대국이다. 99년생 능률이 오르고 활력이 넘치겠다. 행운의 숫자 : 33, 50</p>	<p>45년생 해묵은 것들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과감하게 청산함이 합리적이다. 57년생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69년생 상대의 은덕으로 인해 감동받았다. 81년생 드디어 수습 대국으로 접어들었다. 93년생 책망은 물러가고 칭찬은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05년생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40, 98</p>
<p>40년생 작은 것이 쌓이면 불똥 터지듯할 수 있다. 52년생 길 정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64년생 초기 의도에서 벗어나면 뒤달이 생길 것이다. 76년생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88년생 공들여 왔던 일에 대한 회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00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5, 79</p>	<p>34년생 고려한다면 생각이 달라지리라. 46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다 보면 길정을 부르게 된다. 58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70년생 호혜 관계에 놓이면서 생산성을 띤다. 82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행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94년생 중국의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53</p>
<p>41년생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53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가 곱할 것이다. 65년생 천재일우의 기회가 이 포착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77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89년생 실용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01년생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괜찮은 편이다. 행운의 숫자 : 06, 75</p>	<p>35년생 방법을 달리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47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59년생 바야흐로 길정을 향해 진입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 71년생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절만 활용하면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니라. 95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6, 64</p>